

○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 윤 ○ 미

학기 생활 중 법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법에 관심이 생겨 법률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봉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많은 변화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법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법률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봉사 활동을 통해 법 지식을 보다 더욱 신뢰성 있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국민들에게 사법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게다가, 판례 검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법적 문제와 고민을 엿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직면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주어진 법적 권리와 보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법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저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이해력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 역시 고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지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법률 사회봉사 활동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저의 삶에 뜻 깊은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넓은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양 ○ 영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생 양원영입니다. 저는 이번 2023년 여름학기 법률연맹에 처음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와

미국 헌법 번역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는 배정해주신 국회의원에 대한 공약을 분류하고 점검한 뒤, 이행률을 조사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조사

를 맡은 국회의원은 강원도 동해시 및 삼척시 등 선거구의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과 용인시 국회의원인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공약이 많지 않아서 조사하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다만 KTX 유치라던가 관광자원 활성화를 비롯해 해당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내걸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공약들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100개가 넘는 공약을 내걸고 있었으며 상당히 지엽적이고 복잡하며 부분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소한 정책도 많이 내걸고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다소 있었지만,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언론에서 비추는 국회의원은 정쟁을 벌이며 자기 지역구를 등한시하고, 표에만 집착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보고 검토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그렇지 않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굴리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치열하고 공약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공약을 제시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순기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했던 봉사활동은 미국 뉴햄프셔주 헌법에 대한 번역이었습니다. 우선 연방국가답게 개별 주에서 헌법을 제정했다는 점이 참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50여개의 주가 모두 헌법을 갖고 있다면 주마다 법률질서와 법체계가 확연히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헌법이라고 다른 나라의 헌법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치구조에 해당하는 하원과 상원, 법원과 주지사의 계엄선포권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한국 헌법과도 큰 틀에서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헌법이 특이했던 점은 한국 헌법과는 다르게 장황하게 늘여서 쓴 점이 있었고, 왜 이러한 조문이 제정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이했던 점은 'right of revolution' 즉 혁명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헌법적 차원에서 저항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답게 헌법도 민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금액이라던가 회기년도 등을 법률에 유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했다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회의방법 등을 법률

에 유보하고 있는데, 뉴햄프셔주 헌법은 직접 정하고 있었습니다. 불문법 국가라서인지 헌법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 미국 뉴햄프셔주 헌법 번역봉사를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었고, 또한 미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봉사 모두 이전에 해본 적이 없던 형태의 봉사활동이라서 매우 참신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법률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 수

2023 봄학기에 이어 여름학기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종강 직후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 봄학기에 만족스러웠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이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뜨거운 여름날 재택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역시 저는 의정 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중심으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배정 받아 이번 학기에는 다른 당의 의원분들을 배정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정 모니터링을 하며 느낀 것은 몇몇 의원분들께선 단순히 '논의 중', '계획 중'인 것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질의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처럼 답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기사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해 보면 사업이 전혀 착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어떤 의원분들께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히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지만, 정작 주요 사업이 아닌 사안에 관해선 제대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의원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추진하듯 사법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단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투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후 행보에 더욱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 역시 3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저의 관심사 분야를 위주로 판결문을 찾아 리서치를 진행했다면, 이번 학기는 부러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판결문들을 위주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진행한 판결문은 보험금, 부당해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결문으로 세 판결문 모두 민사 재판에 해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인상 깊었던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보험금 판결문의 경우 보험약관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단어를 두고 제1심과 제2심을 거쳐 제3심까지 논쟁이 이어졌는데, 약관 속 모호한 단어 하나로 인해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이익을 두고 이리도 치열히 싸운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법률의 선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안은 부당해고 판결문입니다. 해당 판결문에선 원고가 해고를 당한

후 몇 달이 지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원고의 회사인 참가인이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통지하여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선 참가인이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기에 원고의 기각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취소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그 시기를 따졌을 때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상식보다는 법이 앞서는 것일까?' 생각하던 찰나에 제3심 판결문을 정리하다 보니 결국 대법원에서는 단지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 시기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난 직후이기에 위 통보를 통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법원에서 역시 상식이 통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진 것 같아 정말 유의미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각자의 자리에서만이라도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법감시를 활성화한다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에 다가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짙어진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는 마쳤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University College London Statistics 조 ○ 창

성동구 갑 홍익표 의원과 여수시 갑 주철현 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지역위원의 공약들을 분류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먼저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에는 특징적으로 서울이지만 낙후된 성동지역 각 마을들의 특색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운집하게 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들이 많았고 성과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학교주변의 안전대책등에도 적극적 노력을 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교적 탄성률이 높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제가 서울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다소 생소하기도 하였던 지역 현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수 산탄의 특수한 문제와 해결책 강구, 벡스코 건물의 향후 활용 방안, 여수시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확장 및 제반 행정적 사안들, 그리고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폐합에 따른 시민들과 각 이해집단들의 분열과 통합의 문제등을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공약과 이행정도를 서치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 후,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으므로 강동구 진선미 의원님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봉사활동과는 별개로 찾아보았으며 가을에는 여수시에 여행가서 흠여져 있는 시청관사들과 확정 개통된 연륙교등도 돌아보고 싶은 맘이 생겼으며, 처음 여행지이지만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 맘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헌법 번역 봉사활동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매일로 조언해 주신대로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에 대한 역사를 비롯한 현재의 인구구성, 경제, 문화, 행정 등에 간략한 조사를 하였으며, 헌법 해석을 하면서 이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헌법에 종교적 문제와 대우가 차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역과는 별개로 각 나라마다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는 지 궁금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새롭게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였습니다. 비교해 봄으로써 각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고 또한 가장 가치롭고 신성하게 지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기본상식을 보다 주체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으로는 제가 유학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 전에 쓰인 행정적인 문체나 법률적 표현에 적응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했다는 점이었고 흥미로웠던 점은 200여 년 전의 사회적 실상을 구경하는 고서의 재미였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200여 년 전부터 법률은 인간을 규율하고 관리를 위함보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첫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 김 ○ 형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점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법 분야 및 정치 분야 관련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 법 사례들까지 두루 확인하며 개인적으로 진행해보기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류로 치면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진행했던 활동들 모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던 활동에 해당했기에 보람찬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제 평소 관심 분야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공약 분석 활동을 진행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들이 어떤 지역 내 사안과 연계되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두루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배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공약이 다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어반복인 경우가 종종 있었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공약도 몇 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거 문화 특성상 공약 내용을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 공약에 힘을 싣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의 경우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생생하게 법조계 현장을 접할 수 있어서 인상깊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을 실제 적용되는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증인 신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제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활동을 통해 법원을 직접 견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 말미에 진행했던 독일 헌법(기본법) 번역의 경우 제가 독일어 구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갖춘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재 인터넷 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독일 기본법 영문 번역본의 경우 영국식 표현을 다수 포함한 경우도 많아, 의미 있는 번역 활동을 제 스스로가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를 대표하는 독일의 헌법을 번역하다 보니 역시 우리나라 법체계가 독일 법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거의 그대로 독일 헌법 내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본 번역 활동을 통해 국가별 법 체계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의드리고자 담당자 분께 이메일을 드렸었는데, 항상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주셨던 담당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 ○ 선

이번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평소 법률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관심 가지고 읽는 학생으로서 이 봉사활동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률 관련 활동을 찾다가 시작한 것이었지만,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과 정치에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는 국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국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지난 학기에도 경험했었는데, 상당히 생소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봉사였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국회의원들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과 경상남도 김해시 을구 김정호 의원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아닐뿐더러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공약과 그 이행 여부를 뉴스 기사 및 해당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하나 조회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투표행위에 그쳤던 저의 정치 참여가 나아가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이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이 공약을 발표하지만 그 공약을 실제로 실현에 옮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봉사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의 보고서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때는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시도하지 못했던 번역 봉사에도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영어 번역을 선택하였고, 미국 뉴저지주 헌법 중 10페이지 가량을 번역하였습니다. 원활한 번역 봉사를 위해 사전에 미국 뉴저지주의 역사와 헌 인구, 주요 종교, 위치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뉴저지주에 대해 직접 공부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뉴저지주 헌법은 뉴저지주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 단위로 헌법이 존재한다는 점이 신기하였으며, 뉴저지주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어떻게 선출되는지 등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그 나라(혹은 주)의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번역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행정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들을 번역하는데 난항을 겪었으나, 최대한 맥락과 맞추어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여름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법과 정치에 대해 탐구하며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다음 가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꼭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 ○ 영

법률소비자연맹 2023학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내린 결론은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울타리이자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연결망이라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법과 정치는 뉴스와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평생을 법과 정치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게 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인식은 어느 샌가 제 마음속에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교양 수업들을 들으며 우리 생활과 법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법의 보호와 규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소송 등을 통해 언제 그 현장에 뛰어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법률

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그 현장에 조금 더 빨리 뛰어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법률소비자연맹으로 이끌어 2023학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 소감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법과 정치의 현장에 와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현장 속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이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봉사활동,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치의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의원의 공약분류를 점검하고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며 참 많은 것을 경험해보았습니다.

평소 선거철이 지나고 의원 당선이 확정되면, 그 이후로는 선출된 의원이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모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하나하나 포털에 검색해보며 공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 이행 현황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이 실제로 이행 완료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정책 제안 과정에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공모전, 창의설계공모전, 사회공헌공모전, 사회참여대회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을 제안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 진행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법원 견학 프로그램 이후로는 거의 법원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법원을 많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정, 고등법원 법정, 지방법원 법정, 형사재판 법정, 민사재판 법정, 소액재판 법정 등 다양한 법정을 드나들고 재판을 방청하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이 집행되는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보다 법은 우리와 밀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그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둘러보며 법원 내 벽에 부착된 다양한 홍보물들,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분들, 꼼꼼히 민원을 접수해주는 분들을 만나며 법원이 단지 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를 일구어나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법과 사회를 잇는 매개체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과 정치와는 먼 곳에서 살아간다고만 생각하던 저를 '법과 사회를 잇는 연결망'이 되도록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과 정치의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학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선사해준 법률소비자연

맹 단체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김 ○ 린

저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법조인이라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던 중,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셨던 지인 분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여유롭던 참이라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름학기 봉사자로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는 각 지역구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는 작업과, 해당 공약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체계화하여 점수로 평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선거철이 되면 우편함에 꽂혀있는 선거공보를 마주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그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알아본 경험은 없었기에 이번 의정 모니터링은 제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각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은 수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해당 공약이 하나하나 해당 지역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기업과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피드백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정치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호랑동은 다른 대외활동에서 약식으로 몇 번 경험해보았지만, 이번처럼 양 측 법률대리인부터 3심까지 진행 현황까지 본격적으로 조사해본 것은 처음이라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미디어와 저작권 관련 판례를 선택하였는데, 해당 판례가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이 매우 많이 달려있는 복잡한 판례라 처음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는 법률 용어 사전을 검색하며 여러 번 정독하니 머릿속에 점차 판례가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느껴져서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판례를 공부할 일이 많을 텐데, 학부생의 시점에서 이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은 이번 여름 학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입니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재판을 방청할만한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기

에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계기로 직접 법원에 방문하고, 변호사님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각자의 일에 열중하는 판사님과 검사님,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라는 제 꿈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여러모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탓에 가을 학기 봉사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겨울 방학 때는 꼭 한 번 더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회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 ○ 지

저는 의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률소비자연맹 행사 도우미 활동 등 최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이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하는 첫 번째 봉사활동인데 법률연맹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경제학과에 재학하면서 비법학과 소속으로 법에 대해서 친숙한 편이 아니었는데 법률소비자 연맹을 통해서 법을 알아가는 과정의 즐거움과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30시간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법률연맹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날 무렵에는 봉사활동을 신청한 일이 이번 여름에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정모니터링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공보를 살펴보고 공약을 파악하는 일은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해당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실제로 해당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전체적인 이행률을 알아보고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좋은 자세도 배운 것도 같습니다.

둘째, 법률소비자연맹 행사 도우미 활동으로 제21대 국회의원 3개년 의정활동종합평가회에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참석했는데, 의정모니터링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시상식에서 실제로 볼 수 있어 앞선 활동들의 가치를 인정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모니터단을 출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어서 이곳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셋째로,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민사재판을 주로 리서치했는데, 가상자산의 착오거래 취소여부, 통정 허위표시의 제3자, 착오송금에 대한 상계권남용여부 등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 과정을 가졌습니다. 판결문의 흐름과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리해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심(2심)이 해석한 부분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생겼는지를 중점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상법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주의 구체적 이익배당 청구권에 대한 판결문을 읽었고 노동법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읽는 방법을 배웠고 법에 대한 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의미가 컸던 활동이었습니다.

넷째로,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집 근처에 남부지방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청을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방청한 재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기도 했고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법조인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재판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는가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에서 1시간 동안 13개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방청한 재판부(민사부)가 모든 재판의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사범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봉사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형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흐름을 중점적으로 파악했고 배임죄에 대한 형 선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재판이었습니다. 다음에 후속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봉사활동 종류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겨울학기 봉사활동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학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언론모니터링도 하고 싶고, 법정모니터링에서 소액재판과 행정재판도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어 학교에서 민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등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큰 발을 내딛게 되는 기점이 되었기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 ○ 수

네 번째로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내자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여름 학기에는 졸업 준비와 법학적성시험 공부 그리고 대회 참가로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니, 계획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학기에는 번역봉사 활동까지 참여해서 나름 뜻깊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 점

검과 공약이행률 2차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왕이면 나와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교홍 의원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아직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약들이 많았고, 자료가 아예 없거나 공약 자체가 중복된 건수도 꽤 있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인데 지역구를 위해 눈에 띄게 해낸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은 임기는 대표자로서 지역구의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 명은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이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라서 그런지, 지역의 교통 편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 블로그에 홍보자료라던가 활동 성과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서 공약이행률 점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뽑힌 국회의원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도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권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되었다.

자율활동으로 EU 경쟁법 번역 봉사활동을 했다. 경제법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그 연장선상으로 번역 봉사를 하면서 유럽의 경쟁법 사례를 알아보고자 도전한 것이었다. 영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확한 번역을 위해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이나 교과서도 찾아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공부한 뒤에 번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EU 경쟁법을 알아보니,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꽤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판결문 리서치도 했다. 첫 번째로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검토했다. 4학년 1학기에 형사소송법도 수강하고, 몇 차례 형사재판 모니터링도 가보면서 실무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거능력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그 논리구조를 따라가보고자 했다. 수업시간에 스치듯이 배웠던 최신 판례였는데, 원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전부를 읽어보면서 제3자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논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수업 복습까지 되니 일석이조였다.

두 번째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대법원 2021도1533 판결에 대해 검토했다. 이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크롤링한 사건이었는데, 신문기사로 미리 접했던 사건의 판결문을 전부 꼼꼼히 읽어보니 핵심 쟁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IT 관련된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판결문 리서치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관심 있던 사건이라서 의미가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할 때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판결문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예전보다 속도도 붙고 더 깔끔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졸업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게 되어 이번 학기를 끝으로 1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지만, 전공 지

식을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뿌듯함으로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법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그동안의 보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 본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류 ○ 정

대학교에서 법 수업을 듣고 법에 관심이 생겨 그와 관련한 경험을 해 보고자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봉사 관련 활동은 전혀 없었던지라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서 봉사 활동 결과물에 대해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셔서 즐겁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의정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 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배정받게 된 두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고, 해당 공약이 어느 정도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0점~5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활동입니다. 공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정받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 공보, 신문 기사 및 해당 의원의 블로그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공약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정 모니터링 과정은 제게 상당히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공약이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공약인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해나감에 따라 '내가 의원이라면 과연 이 공약을 추진했을까?', '이 공약을 시행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등, 마치 본인이 구의원이 된 것처럼 공약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아니었다면 대학생으로서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번역 봉사 활동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헌법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어 실력에 꽤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영문 소설과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법조문 특유의 딱딱한 문체, 너무나도 긴 문장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혼재되어 번역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조문이 대략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법조문의 각 문장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약 두 달 반 동안 법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저에겐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야인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과 정치가 서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또 법률연맹 봉사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름학기에는 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에 도전하여 새로운 배움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 제출물에 정성스레 피드백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공법학과 구 ○ 민

저는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나 작용하고 있는 법에 대한 흥미와, 법이 가진 권위와 절대적 규율성에 대한 동경, 탐구심을 가지고 법과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특별히 진학한 후에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법률의 이론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정 등 현장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또 습득한 법률 지식과 경험들을 기반으로 모의재판 등의 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시연해가는 등 법률에 관한 보다 실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진학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되었고, 비대면 활동이라는 특성상 이론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제가 기대했던 '현장에서의 실체적인 법의 모습'을 경험하고 배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 기조는 제가 3학년으로 진급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3학년에 이르기까지 법의 실체적인 모습에 대한 저의 경험 수준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교과서를 통해 법을 배웠던 때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됨에 따라 깊은 회의감이 들었고, 저는 이를 재고하고 환기하고자 휴학을 결정한 차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관련된 실체적인 경험을 쌓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휴학 생활을 시작한 이후 더 이상은 학교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한 기회들을 찾아보던 중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여름학기 법률봉사활동에 참여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활동의 높은 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순수 사법뿐 아니라 정치, 언론 등 보다 넓은 분야에서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필요했던 현장 학습 경험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학기 봉사에 참여하여,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 법률연맹 주최 행사에의 참여 및 보조 활동, 판결문 리서치 활동, 그리고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중 제가 가장 많이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사실 봉사를 시작할 무렵까지만 해도 이처럼 여러 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대면 수업의 한계로 인해 대학 재학 중 가장 많이 경험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연맹 봉사로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학교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전히 제 흥미와 탐구심에 따라 판례를 선정할 수 있었고, 그런 판례들을 읽고 오롯이 제 시각과 논리에 입각하여 진솔히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관여 재판관 및 소송대리인들의 판결 기록들까지도 찾아 정리하고, 판결문 특유의

어려운 문언들을 고심하여 저만의 표현으로 번역하며, 또 후속 기사들을 함께 찾아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도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오랜만에 순수하게 판결문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에 있어 가장 후회하지 않았던 활동은 법률연맹 주관 행사 참여 및 행사 보조 봉사입니다.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대학에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평가 활동을 수행한 후에 진행된 행사였다보니, 의정활동 우수자로서 헌정대상 시상대에 오른 의원들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들을 눈여겨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평가활동은 가장 느낀 점이 많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국회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며, 법률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건 공약들 대부분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임을 직접 확인하면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입법이라는 점을 간파해왔던 것을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공약 중 대다수가 해당 의원이 지역구의 사정을 고려해 직접 고안한 것이 아닌 소속 당에서 내건 공약을 그대로 옮겨 놓았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 받았고, 앞으로는 제 지역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그 이행률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선거에 참여해야겠다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약 이행률 조사를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평가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아닌 임의로 배정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했는데, 이는 국내 최대 시민학생 사법감시단인 법률연맹에서 주관하여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라는 특성상 중복 및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채택한 배정 방식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의의 국회의원을 배정받아 조사하게 됨에 따라, 제 생활에 밀접한 국회의원들을 배정받아 진행했을 때 비해 공약률 이행 조사를 통한 효능감이 다소 반감되었을 것이기에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자, 법이 가진 권위에 대한 동경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킨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재판 현장에서 증인을 배려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직접 눈에 담으며 평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어있던 법조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도 깰 수 있었기에 뜻깊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은 저에게 있어 법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의 봉사경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양질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저와 현장 학습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김 ○ 원

이번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

하면서 다양한 법률 분야를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봄학기에는 법정치 의식조사를 진행했지만, 여름학기에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며 시민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면서 정치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공약의 현실적인 영향력과 정책 실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거의 이루어진 공약과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공약들을 파악하면서 정책과 공약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느꼈다.

봄학기에 판결문 리서치 활동만 진행하여 법정 모니터링도 해볼 것이라 적었지만, 이번 학기에도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형법 관련 판결문 리서치를 주로 진행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의 복잡한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법률 분야에서의 학습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년재판에 관심이 있어 소년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특히, 소년범이 저지른 유명한 신생아 살인 사건 판결문이 매우 흥미로웠다. 새롭게 법리를 만들어낸 대법관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보면서 법률 분야의 복잡성과 윤리적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의 어려움과 도전을 인식하고 동시에 법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관련 서적을 계속 읽어가며 지식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봉사활동 중에 미주리주 헌법을 번역하는 경험도 흥미로웠다. 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렵고 문장이 복잡하여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을 원문으로 찾아본 것이 처음이라 의미있었다. 특히, 주별로 헌법이 따로 있는 현상이 매우 흥미로웠고 미주리주 헌법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며 주법과 연방법의 상호작용,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분립,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기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봄학기와는 다른 시각과 경험을 제공했다. 법률 분야를 탐구하고 학습하면서 앞으로의 학문적 및 직업적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법률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식을 더욱 쌓아가고자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저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곽 ○ 준

2023년 여름학기 7월~8월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봉사활동 자체를 고등학교 이후에는 처음으로 한 것이었다. 이곳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 내가 수행한 것은 의정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이다.

의정모니터링은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종 점검하는 시기에 이르렀기에 그 중요성은 컸다. 국회의원의 공약을 낱알이 살펴보고 또 확인해보는 경험이었다. 이전까지는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되면 공약을 잠

간 보고 넘어가기 일쑤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의 선거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있어 유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 공약을 실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투표를 할 때 이를 반영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당만 보고 투표를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 활동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이자 감시자로서 한 명 한 명의 정치적 안목을 키우고 그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는지, 또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이들이 있기에 실무에 임하는 당사자 하에 높은 이행을 이끌어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정모니터링은 사법부의 현장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장이었다. 먼저 접한 것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대학생모니터링단 단체로 방문해 보았다. 당시 처음 가본 법원이었기에 매우 신기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엄숙하고 중대하게 사안을 다루며 당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모두를 보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분위기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후에는 혼자서 법원을 방문하며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형사재판은 사기, 배임,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이 있었고 민사재판은 부동산 관련, 개인 채무, 상속 등의 사건들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해볼 수 있었다. 재판은 주로 오전 또는 오후로 나뉘어 이루어지는데,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많은 사건이 연속해서 진행되었다. 이 때문인지 그 진행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말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과연 피고인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지만 때문에 변호인의 존재가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법원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수많은 서류 문치는 분위기를 압도하였으며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의 진행과 증인에게 하는 맥락을 단번에 파악하는 질문들이 그 중함과 사건을 진행을 관찰하는 노련함을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인석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증인이 증언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안위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사법 시스템의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재판들과 국회의 국회의원을 파악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봉사활동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 법치 사회 자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뜻깊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상의 봉사와는 또 다른 개념을 직접 경험해보며 우리 사회의 사법 질서의 무궁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숙명여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김 ○ 정

올해 4학년을 맞이하고 대학생활 내내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여름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찾아보게 된 단체가 법률소비자연맹이었다. 대학에서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는데 올해에 새롭게 진로에 관련하여 눈 뜨게 된 것이 로스쿨이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고 법은 막연히 어렵고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던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다양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다.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봉사는 바로 번역봉사였다. 한 번도 법전을 보지도 않았던 내가 다른 나라 언어의 헌법을 번역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법을 읽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법전에서 쓰이는 용어나 전개방식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독일어 능력을 살려 번역 봉사를 진행하니 보람차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실생활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할 능력이 많지 않았는데 독일의 헌법이 대륙법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조사하며 알게 되어 나중에 법을 깊게 공부할 때 독일어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한 봉사는 의정모니터링이다. 김선교 경기여주시 양평군 의원과,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의 공약분류 점검과 이행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정모니터링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다. 의원의 공약을 일일이 점검하고 또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찾는 과정은 꼼꼼히 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공약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많은 공약을 후보자들이 약속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든 공약을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또 그 많은 공약들 중에서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적다. 이유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더 나은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는 전 선거 공약의 이행률을 찾아보고, 또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공약을 약속하는 사람인가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 실行了한 봉사는 법정모니터링이었다. 한 번도 법원을 가보지 않았던 내게 가장 걱정되면서 기대되는 봉사였다. 혼자 처음 가는 법원이어서 긴장했지만 민원 담당 법원 직원분들의 도움을 수 있었고, 자유롭게 법정에 들어가 참관할 수 있었다. 법정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생각보다 넓지도 않았고 조용하고 빠른 절차로 진행되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봤던 법정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시간상의 이유로 오래 공판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고 나라면 어떻게 심문했을까? 또 어떻게 변호했을까? 또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법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미래의 내 진로에 대해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분

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2023년 여름봉사로 실행했던 3가지 봉사활동은 모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평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봉사를 통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에서, 로스쿨을 진학하였을 때도 이번의 경험은 잊지 못할 것이며 대학생활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 같다.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양 ○ 연

지난 학기 학교에서 행정법 과목을 수강한 뒤, 제가 법학에 진지하게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학문적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학 관련 활동을 찾아보았고, 소비자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이론만 학습했을 뿐인 제가 의미미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담당자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주 시민의 의무가 단순히 선거 공약을 보고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약을 분류하면서 선거공보에 적혀 있는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공약의 이행 여부와 정도를 신문 기사 등의 근거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이행 점수를 매김으로써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도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국민의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제가 학기 중 학습했던 판결문 중,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을 파악하고 싶었던 판결문을 선정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도 해당 판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판결문 전체를 읽고 그 안에서 핵심 쟁점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약 22건의 형사 재판을 방청하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재판 과정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재판을 통해 저 스스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듣는 판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준비해온 검사,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권력에 굴복해 정의롭지 못한 변호를 하는 변호인 등 다양한 유형의 법조인들을 보면서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론 학습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경험하지는 못했고 두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경험

한 봉사활동은 그 시간에 상관없이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학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증진해나가려고 합니다.

○ 일반 심리학과 졸업 심 ○ 리

“국가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원 또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전체성 있는 활동”이라는 문구가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보람의 근원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국민의식과 감시하는 활동, 바로잡고자 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살아가기 바쁜 개인으로서 그 과정을 수행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선한 방향으로 굳건히 가는 단체가 길잡이로서 방법을 제시해주었고, 이 곳에 속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니 참으로 보람칩니다.

오티 후 첫 번째로 필수활동인 국회 의정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배정 받은 국회의원 3명의 각 공약별 이행여부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판결문 리서치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를 검색하는 것과 판결문을 읽고 요지 및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섯 째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당사자는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등으로 생각하면서, 때로는 변론또는 판결이 아쉽고, 때로는 매우 만족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첫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성심성의껏 해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가을 학기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게되었지만, 겨울 학기 오티 때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더욱 제 앞날에 대한 다짐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앞날을 장담할순 없으나, 적어도 오늘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내일은 더 나은 나,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다짐의 한 걸음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익대학교 법학부 김 ○ 현

<의정모니터링> 여름학기 필수활동으로,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 이행률을 파악해보았다. 공약 분류와 이행률 1차 조사가 반영된 파일을 토대로 2차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미 이전 봉사자 분이 확인해주신 부분이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자 공약집과 엑셀에 나열된 공약들을 다시 한 번 비교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인터넷에 의원님 성함과 공약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이행률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의원님 공식 블로그에 기재된 글이나 뉴스 기사에서 찾은 해당 사업·공사 진행 업체의 홈페이지 글 등을 참고하며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언제 어떤 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

다. 의정 모니터링은 일전에 해 본 적 없는 생소한 활동이라 처음엔 그저 막막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도 이렇게나 많은 공약을 내고 출마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놀라웠고 소속 정당의 다른 의원들의 공약, 또는 당 전체의 공약과 겹치는 공약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많은 글을 비교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노하우가 생겼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능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 큰 보람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파악은 평소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도 자세히는 어려운 작업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봉사할 수 있어 기뻐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모든 의원분들이 이행률이 저조한 공약들을 최대한 많이 수행해주셨으면 한다.

<판결문 리서치> 작년 2학기에 수강한 형법총론 수업 때 인상깊었던 판례의 정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리서치를 진행했다. 1심 판결문이 두 개라서 처음엔 내가 무언갈 잘못 하고 있는 줄 알고 헤맸으나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후 안심할 수 있었다. 리서치에서 어려웠던 점은 3심을 제외한 판결문이 전부 별도의 유료 열람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것과 판결문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쟁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료 판결문을 이용함으로써 기록목록, 증거목록 및 범죄일람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사건 사실관계 파악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일전에 양형위원회가 제작한 양형체험프로그램에서 양형 기준 몇 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판결과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이번 활동에서도 양형이란 역시 어려운 활동임을 느꼈다. 물론 양형에 사건이 많이 반영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가중·감형 요소를 택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중의 법감정과 거리가 종종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독립적이어야 할 법조인의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용어해설 파트를 작성하기 위해 판결문들을 다시 읽어보니 법률용어나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석이 매끄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검사가 쓰는 공소장을 한 문장으로만 완성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법조계에서도 지양하고 변화시키려는 분위기라고 하여 다행이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용어가 순화되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법률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번역 봉사> 미국 미주리주 헌법을 배정받았다. 처음에 살펴볼 때는 하나의 항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적잖이 놀랐다.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길이인데 미주리주 헌법은 미국연방헌법의 8배 길이라고 한다. 미국이 양원제도를 택한 연방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며 단어 선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약어를 찾는데 의외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뒤 문맥을 보며 추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아무래도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특성이 담긴 헌법이다보니 그 단어가 포함된 한글 기사나 문서가 아예 없을 때는 인터넷 검색과 논문을 참고하며 최대한 풀이했다. 우리나라 약어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입장도 이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외국 헌법 번역은 매력적인 활동이었다. 다음엔 일반 법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오 ○ 아

제게 있어서 2023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직전 학기에 진행하였던 봄학기 봉사활동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나 번역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용어나 방법이 낯설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던 이번 여름학기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성장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 여름학기에는 봄학과 동일하게 판결문리서치와 번역봉사 활동을 신청하였으나, 판결문의 형식이나 요건을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에 번역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던 직전 학기와는 달리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얻어간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법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낯선 법률 용어를 찾아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법학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음을 스스로도 크게 체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 학기에 행정법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수업에서 진행했던 팀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름학기가 마무리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이번 여름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이러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는 더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최 ○ 정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게된 후 봉사활동 신청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OT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다른 대학생 봉사활동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해서 아쉬웠지만 봉사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되돌아보니 뿌듯했던 봉사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의원모니터링이었다. 2명의 국회의원을 배정받았는데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약이 정말 많기도 많았고, 정확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는 것이 어려웠다. 하나 하나 조사해보니 비슷한 공약들도 정말 많았고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도 정말 많았다. 물론 이행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약들도 많았지만 남발되는 공약들이 많았다.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 공약을 잘 알아보지 않았을뿐더러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률을 살펴보아야겠다.

이어서 선택한 봉사활동은 판결문리서치였다. 국민체

육진헌법 위반 판결문, 이혼 소송 청구의 소의 판결문, 미성년자 입양 허가 관련 판결문, 미성년 자녀를 둔 자의 등록부 정정 관련 판결문, 임금 관련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1심, 2심, 3심의 판결문을 전문을 분석하고 쟁점들을 파악해보면서 깨닫는 점도 많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판결문을 읽는 것부터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판결문을 읽는 것이 익숙해지고 쟁점들을 파악하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름학기 사회봉사에서는 의원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2가지의 종류만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다음에 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하 ○ 영

23년 여름학기 봉사를 무난히 마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었다. 사실 23년 봄학기 때도 봉사를 신청하여 활동을 하였으나, 봉사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활동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처음 해보는 터라 활동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간단한 리서치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들이 점점 몸에 익어가는 것을 느꼈다. 전보다 빠르게, 전보다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이 들었다. 나는 봄학과와 동일하게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제출할 때마다 돌아오는 담당자들의 따뜻한 답메일로 큰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가장 비약적으로 실력이 오르는 것을 느낀 부분은 판결문의 용어와 구조이해이다. 1학기에 법학과 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배운 덕에 소의 성립, 구조, 당사자, 변론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판결문에 접목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글로만 적혀있는 원고, 피고 측 주장들을 변론주의 측면에서 이해하니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또한 소송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가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관련 리서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이번 봉사를 계기로 앞으로 궁금한 판례나 의원에 대해서 혼자서도 깊이 있게 1차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활동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필수활동이 '의정 모니터링'이라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기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 필수 활동이었다면 법률봉사활동의 목적에 더욱 부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려대학교 졸업 여 ○ 영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처음 참여해보았지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제21대 현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조

사, 그리고 해외(미국)의 법률자료번역 두 가지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고, 법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공약의 이행 여부와 판단 근거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해외 법률 자료 번역 활동은 법률 분야의 언어와 내용의 복잡성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 주 헌법을 번역하면서 법률 용어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고, 이를 통해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첫 시작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깊어지는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이행율에 대한 자체 분석자료가 있어 판단 근거는 있었지만 오래된 자료여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기사나 실제 발의자와의언명을 확인 가능한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리서치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생각 보다 공약이행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으나 애초에 애매모호하게 작성되거나 이미 임기 전부터 시행중인 공약들도 꽤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에만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활동을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해당 의원의 직무이행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제 공약 이행도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편, 해외(미국)의 법률자료번역 활동은 미국 주 헌법을 번역하면서 법률 분야의 언어와 내용의 복잡성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생소한 법률 내용이다 보니 문장 자체가 호흡이 길고 법률 용어가 빠곡하게 있어 읽는 것만 하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미국 주 헌법을 제대로 정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난해한 문맥을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 법률용어집, 논문 등을 참조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단의 길이와 법률용어의 밀도가 높아 번역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영어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 개인적인 성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률과 정치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금번 활동뿐만 아니라 판결문 리서치나 언론 모니터링과 같은 다른 활동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

대로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홍익대학교 법학부 남 ○ 백

나의 두번째 법률연맹 봉사활동이 끝이 났다. 학기 중에는 바빠서 진행을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진행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국회의원 의정활동종합평가회 행사 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법정 모니터링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의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한 번씩 더 했다.

우선 봉사활동 기간 초반에 의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내가 맡은 국회의원은 서울시 중랑구를 박홍근 의원과 경기도 수원시를 백혜련 의원이었다. 저번 겨울 처음 의정 모니터링 봉사를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모니터링은 확실히 두 번째라서 그런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했다. 또한 저번에는 강원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더 익숙한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다. 하지만 역시 공약수가 엄청 많고 이번에는 맡은 국회의원이 2명이라 시간도 더 걸렸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는지,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종합평가회 행사 보조 봉사활동을 했다. 저번에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순 참석만 하고 행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상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더 보람찼던 것 같다. 또한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내빈 분들을 보는 것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도 이후에 사법계에서 일할지 행정이나 입법계에서 일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꿈꾸는 입장에서 국회의원분들을 보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갈 힘을 주었던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는 이번에 2개의 판례를 진행했다. 친부가 프랑스에서 살던 어린 딸을 면접교섭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온 후 보내지 않아 미성년자약취로 기소된 사건과, 법무사 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이 비송사건의 전반적인 처리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진행했다. 둘 다 꽤나 생각해볼 점이 많은 판례였다. 대법원까지 간 판결인 만큼 딱 떨어지는 판단보다는 법리해석과 상황판단을 통해 더 적절한 판결을 내린 판례들이었다. 두 판례 모두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두번째 판례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 전공공부를 하면서도 판례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분석한 적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분석함으로써 더 세세하게 법리를 파악해 보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저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고나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봉사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다음 여름방학에 여름학기 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완료하게 돼서 뿌듯하다. 그리고 확실히 더 수월하게 봉사들을 잘 끝낸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다. 이제 다음 방학에는 4학년이라 봉

사활동에 신경을 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더 익숙해진 만큼 다음 봉사를 하게 된다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내 전공과 관심을 살려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여 만든 자료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추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면 좋겠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황 ○ 빈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찾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직접 갈 수도 있고 여러 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봤기에 지레 겁먹어 있었는데, 마침 메일로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연락이 와서 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법원을 간다는 것이 떨렸지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에 입장할 때는 엄중한 분위기에 긴장됐지만, 단체로 온 것이기에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모니터링을 진행한 사건은 400억 가량의 고액의 횡령으로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피고가 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기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재판을 통해서 배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현재 우리나라의 법원과 법정의 진행 방식과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증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보다 증거의 효력성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사건을 하나의 쟁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있는 학생으로서 법복을 착용하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여자 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검사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제출 및 서명 확인이 전부였습니다.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고 끝나는 재판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로 인해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의 법을 번역하면서 이들의 가치관과 목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또한 민주주의의 중심과 국가의 이루는 주권 및 국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영어로 쓰인 법률용어를 잘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의 차이점 또한 비교해볼 수 있었고,수정헌법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주법 중 세계대전에 참여한 군인은 투표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가장 인상 있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율을 점검하는 의정모니터링은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핵심이 굵은 공약을 몇 가지 내세우는 게 대부분이기에, 어렵히 지키려니 생각해서 따로 이행의 유무를 찾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당의 구분이 없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고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공약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 유무를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이 절반 가까이 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대표 공약으로 세웠던 큰 사업들은 몇 개 이행한 것을 확인했고, 사업의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약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나니, 지금껏 이행을 확인할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국민들이 본인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조차 확인을 안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하여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특장이었던 지렛대 시민운동을 간접적으로 실천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나름의 즐거움과 지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여름방학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 ○ 진

이번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해보았는데, 덕분에 정말 뜻깊고 보람찬 여름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모니터링, 두 번째는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세 번째는 번역봉사입니다. 아래에 제가 한 봉사활동들의 내용 및 해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제 소감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여름학기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희국 의원,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김형동 의원의 공약점검을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공약들과 선출 이후 공약들의 실행률 등을 조사 및 검토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본 활동을 통해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고, 의원들의 공약들과 그 실행률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주권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 재판 절차를 직접 봄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을 밀접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절차를 잘 이끌어가고 경청을 잘하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검사는 철저한 준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 하였고, 변호사 또한 철

저한 준비로 피고인의 무죄를 유도하였습니다. 추후에 변호사 혹은 판사로서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이번 활동 덕분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 델라웨어주 헌법의 3~23쪽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헌법 이외에 다른 나라의 헌법을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 서인지, 한 번쯤은 다른 나라의 헌법을 공부하고 번역해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국 델라웨어주 헌법 번역을 배정받았습니다. 번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델라웨어주의 역사적 배경 및 정치적 배경을 찾아보아 번역을 할 때에 있어 맥락이 보다 잘 이해되도록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외국 헌법과 같은 생소한 공적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공적 문서를 번역해본 적은 없었기에, 번역활동을 처음 할 때에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도 여러 개 찾아보면서 어떻게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될지 등을 많이 고민해보며, 번역이 최대한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2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원문을 번역하였고, 제 영어실력을 이러한 활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 위에 서술한 세 가지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덕분에 보람차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여유롭지는 못하여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봉사활동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활동에도 더 참여해보고 싶고, 언론 모니터링 활동 등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 덕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 ○ 현

2023년 1년을 휴학하기로 마음먹고, 취업을 위해 스펙들을 준비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전공 관련 대외활동을 찾아봤는데, 다른 전공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법 관련 대외활동들도, 법무법인 홍보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 활동들이, 제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실상은 홍보를 대신하는 활동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의 전공 관련 대외활동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위 활동을 찾았을 때가 봄학기 활동이 끝나고 여름학기 봉사자를 모집하는 시기였습니다. 제 동기를 한명 설득하여 같이 활동을 진행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저는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했습니다. 각각의 활동이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을 활동들이었습니다. 처음 진행한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입니다. 저는 민형배, 박성민의원의 의정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는 2명의 의원 공약사항을 점검했을 뿐이지만, 이렇게 까지 공약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의정모니터링은 시간이 제가 생각한거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약이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 공약이 제

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우선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검색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혹은 의원 본인의 블로그 등에 없지만 착수하거나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정 공약에 대해 이해관계, 인가 혹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형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을이 지역구인데, 광산구 갑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광주시장 등등 의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대단히 많지는 않았습다. 그래서 공약이 이행되었더라도, 국회의원이 기여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답답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어렵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하여, 본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지키게끔 촉구하는 촉매제 역할이 될것이라 생각해 뜻깊었습니다.

그 외에 제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법학과 학생이었기에, 일부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아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문과정은 어떤지 등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한 결과로 판결문이 나오는 과정일텐데, 위 과정속에서 나온 판결문에 대해 리서치를 해보고,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들 역시 신기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일반인들에게는 알아듣기 어렵거나 증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는 부분들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위 봉사활동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학기에 하는 국정조사모니터링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 싶었으나, 일정상 안되어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쉽습다. 덕분에 제 전공과 관련있는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김 ○ 원

여름방학 동안 참여했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났다.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도전한 것도 있고 새롭게 경험한 것도 있다. 교과서 속 법학만 공부하던 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평소 즐겨하던 봉사활동과 다른 만큼 어색하고 살짝 두려운 점도 있었지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활동임을 명심하면서 활동하다 보니 즐겁게 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다. 사실 의정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큰 관심이 없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기 전의 '나'나 한 후의 '나'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태어난 후부터 여전히 난 권리.의무의 주체이었지만 의정 모니터링 전의 내가 그러한 것들에 큰 관심이 없고 민주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매번 의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할 때처럼 마음가짐을 갖추 수는 없겠지만 늘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졌다.

또한 총 3명의 국회의원 공약을 검토했는데, 각 지역

구의 숙원 사업이나 공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큰 노력을 쏟으면서 결국 성취해내기도 하지만 대선에만 내걸어놓고 그 이후로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공약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의정 모니터링 이후에 내 주변부터, 내가 사는 지역부터 눈이 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의정 모니터링을 끝내고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검색도 해보고 최근 진행한 법률소비자연맹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도 확인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난 뒤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앞으로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원의 기능, 사법기관의 기능을 향한 숭고함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법정하면 무섭고 딱딱한 곳, 죄를 감별하는 곳,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장소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모니터링한 법정은 그리 딱딱하지도 엄청날 정도로 위압감이 느껴지는 장소는 아니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형을 정하기 위해서인지 어느 정도 무거운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사법제도를 잘 이끌어나가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민사재판에서 느낀 것은 하루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다양한 분야가 얹혀 있는 사실관계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명확히 하는 사법기능에 대해 깊이 감탄했다. 특히 모니터링한 재판 중에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통역사분들이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관찰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단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무작정 방청하면 어려움이 있을 순 있지만 어려운 용어만 난무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판이 아니라서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하기에 편했던 것도 좋았다. 또한, 법학 교과서로만 접하던 개념들을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접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형법총칙 시간에 배웠던 포괄일죄나 횡령죄 등등을 실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접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도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비슷하게 느꼈었다. 다른 봉사자분들과 함께하고 연맹에서 직접 나눠준 자료를 통해 깊이 재판을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결론적으로 여름 방학에 경험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뜻깊고 흥미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 ○ 정

지난 학기에 이어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교육적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욱 확장하고, 실제 법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미국 코네티컷주 헌법 번역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주요한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의 실무 적용과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 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사들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은 단순한 선거 운동이나 정치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과 투명성의 중요한 근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법감시배시원단 활동을 통해 법정에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방청하면서, 법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제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와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법률 체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제가 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법률은 다른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법률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법률이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2023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다양한 전공지식을 작게나마 직접 활용해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가끔은 이 봉사활동이 문득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낸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 ○ 섭

이번 봉사 활동은 나에게 있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봉사 활동이기 때문이다. 많은 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내 꿈이 어릴 때부터 변호사였던 만큼, 법과 관련하여 흥미가 많았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들은 이 흥미를 충족시켜줄 만큼 다양하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의정 모니터링은 직접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며 선거기간에 대해 읽고 넘겼던 다양한 공약을 접할 수 있었고, 우리지

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공약을 보며 이런 공약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 번역 봉사를 하며 주로 미국과 일본 헌법을 번역했다. 영어는 모두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만큼 보편적이고, 당연히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며 배운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이 능력을 이번 기회에 발휘하니 더욱더 뿌듯하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운 보람이 있었다. 영어에 비해 일본어를 배운 기간이 짧아 과연 내가 어려운 헌법을 잘 번역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번역할 수 있어서 일본어에 자신감도 올라갔다.

학생으로서 언어 공부를 하며, 종종 헌법의 어려운 언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곤 했는데, 이 봉사를 통해 단순히 정확한 번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문서의 본질과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텍스트는 단순히 단어를 넘어서서 역사적, 철학적인 기반을 통해 탄생한 만큼 번역과정에서의 세심함과 법률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번역 봉사를 통해 학문적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미국과 일본의 법적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법률 이해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의정 모니터링 봉사 활동을 하면서는 국회의원들의 약속들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약속과 계획의 진행 상황을 성실히 추적하며 입법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활동에 참여한 것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졌다. 이 경험을 통해 투명성, 의사소통,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배웠다. 시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공약이 이행된 경우를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감문을 마무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을 다른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번역 봉사를 통해 법적 문서에 대한 통찰력, 전문성, 등을 얻을 수 있었고,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의식을 얻고, 우리의 능력으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김 ○ 주

올해 초 로스쿨 진학을 꿈꾸게 된 이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 지식이 없었음에도 저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이번 여름학기에도 이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봄학기과 마찬가지로 여름학기 또한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아쉬웠지만, 사법감시배시원단 활동과 제21대 국회의원 3개년 의정활동종합평가회(겸 헌정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정기국회(9~10월)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준비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과 겹쳤던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다른 학기에 비해 훨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기에 제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학기였습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서 진행

했던 의정모니터링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그리고 러시아 헌법 번역 관련 봉사는 훨씬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활동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했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학기에는 여름학기에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3개년 의정활동종합평가회(겸 헌정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정기국회(9~10월)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준비모임)에 행사도우미로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 행로조사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약속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이행률이 매우 낮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의원 3개년 의정활동종합평가회(겸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높은 점수로 수상하신 국회의원들을 보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정기국회(9~10월)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준비모임)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립 목적과 의의, 그리고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인 저도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자로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공정한 사법의 실현, 인권과 사회정의의 구현, 그리고 사법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 있게 참여했던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되었던 재판 또한 증인신문 위주였는데 역시나 피해자의 권익이 아직은 많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권익 또한 보호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재판을 방청하면서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과 목표를 새롭게 세길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반대신문을 이어 나갔던 변호사, 그리고 재판당사자들의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정리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의 증인신문 기일이 9월 1일이었으나 개강일과 겹쳐 방청하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을학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겨울학기에 다시 신청하여 이번에는 해보지 못했던 판결문리서치나 언론모니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관련 법지식이 없어서, 또는 생소한 활동이라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은 활동이니 꼭 한번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봄학기 봉사활동 신청 전날까지 고민했으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보내준 안내자료만 정독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한다면 누구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

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허 ○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된 것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터에 학부 생활 동안 관련된 활동을 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친구를 따라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가 23학년도 1학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0학점의 수업을 들으며 병행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배정받은 의정모니터링도 다 완수하지 못한 채 학기를 마무리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겼으니 이번에는야말로 반드시 완수하리라 다짐하며 재신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학 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유롭게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이번 방학 때는 40시간 동안의 교육봉사활동과 더불어 법률연맹 활동을 진행했기도 하고, 또 '방학이니 시간이 많다'라는 막연한 안일함에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기간 내에 완수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아무런 활동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방학이 끝나기 1~2주 전야야 부랴부랴 남은 활동들을 수행했다. 다만 그렇다고 성의 없는 작업물을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의정모니터링은 물론, 선택 활동인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에 임할 때 모두 낯선 활동임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그와는 별개로 1달 가량 다른 봉사활동을 핑계삼아 법률연맹 활동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게 된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1학기 때도 필수활동으로 지정되었었는데, 당시에는 공약 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또 리서치 활동에 익숙치 않아 끝내 완수하지 못했었다. 그를 거울삼아 여름학기 때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밀도 있게 활동을 수행했다. 포털 뉴스 기사를 기본으로 하여, 국회의원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 해당 지역구 자치단체 홈페이지까지 전방위로 서칭하여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도대체 이 공약에는 몇 점을 줘야 할까'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연맹 측에서 점수 부여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나, 0점에서 5점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공약 활동의 구체성, 이행 정도의 적시성 등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국회의원들이 세간의 인식보다는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되기도 한 한편, 그럼에도 이행률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더 분발해 줌이 어떠할까 하기도 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형사재판 법정만을 방청했다. 목표하는 바가 검사가 되어 범법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민사보다는 형사법정을 위주로 방청했다. 가장 크게 들었던 인상은 역시 현실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개중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관계의 올바른 파악을 위한 신문과 각자의 승소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사건도 있었지만, 대

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듯이 형식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었다. 주로 제1심 재판을 방청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물론 법관들과 검사들, 변호인들 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던 서류들은 그들의 일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쉽게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했다. 재판이라는 본 무대는 제3자의 눈에는 다소 허무하게 비취졌을 수 있으나, 그 단 몇 분을 위해 몇 시간, 며칠동안 그들이 서류더미들과 씨름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이 개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관한 개괄적인 감시 활동이었다면, 판결문 리서치는 기판된 재판의 판결문들을 광장히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판결문들을 정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쟁점을 찾고, 그에 따른 판결의 이유와 타당성을 생각해보는 데 들이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았다. 거기다 소송 당사자, 대리인, 그리고 법관의 인적사항까지 서칭하고 관련 기사까지 찾아야 하니 그야말로 그 사건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통 판결문 리서치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큰 시사점을 주는 대법원 주요판결문들이라 하여 나의 작업물을 활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한편으로는 고되었으나 또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 또 그것이 민주·법치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이 되어 기쁘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또 활동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한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나 ○ 경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동안 필수 봉사였던 의정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판결문 리서치, 번역 봉사를 진행하였다. 세 활동 모두 쉬운 건 없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점검 및 2차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게 되었다.

배정된 2명의 국회의원 중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떠한 공약들이 나왔고 또 얼마만큼 잘 이행이 되었을지 더욱 관심이 쏠렸다.

앞선 1차 공약이행률 조사 당시, 해당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약의 판단이 불가하거나 또는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그로부터 2차 판단 전까지 공약이 시행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공약점검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왜 이차적으로 판단하는지 몸소 알게 된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형사뿐 아니라 민사, 행정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판결문을 보게 되었다.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민사사건은 주로 어느 한 쪽의 무죄를 가리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행정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살펴볼 때는 얼핏 민사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민사소송이 되거나 행정소송을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리서치활동들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찾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지 등의 능력이 법조인으로서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상기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마지막으로 번역봉사의 경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시작 전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과연 번역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어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또 내가 외국 법률을 번역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고 미국 몬태나주 헌법을 배정받았다. 처음 원문을 마주했을 때 크게 어려워 보이는 점이 없었는데, 번역을 하면 할수록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았다.

법률용어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혹 다른 의미는 없는지, 이 문맥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등을 고민하면서 최대한 매끄러운 문장이 되도록 거듭 수정했다. 제출 후에도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 어찌지 싶었는데, 격정과는 다르게 담당자님께서 잘한 것 같다며 최종본으로 제출을 해도 된다고 하셨다. 안도와 동시에 너무 뿌듯했다. 그리고 몬태나주는 주의 60퍼센트가 기독교인데, 전문에 We the people of Montana grateful to God for ~ 라고 시작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번역봉사는 지금껏 했던 봉사활동 중에서 시간과 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법률용어도 공부해 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 ○ 지

봉사활동은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소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으며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활동을 마쳤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과 더불어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그중에 제 전공 분야와 맞는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법학도로서 전공 분야를 살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여름학기 봉사자인 저는 2차 공약이행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보가 한 수많은 공약의 진행사항을 일일이 검색하여 공식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접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몇 번의 교차검증을 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듦보다는 제가 투표한 의원에 대한 조사도 다른 봉사자들에 의해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든든한 기분이 들었고, 저 역시 의원들의 공약을 믿고 지지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게 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관심이 많아 실화죄 사건과 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앞으로 AI가 고도로 발달한다고 해도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항간에는 AI 판사가 도입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간의 판례를 취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단순히 법조항을 사건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법조항이지만 이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사건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AI 판사는 과거에 머무른 판결밖에 내릴 수 없지만, 판사는 그동안의 판례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이더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기도 했기 때문에, 결론만 도출되는 AI의 판결문으로는 사건을 다양한 각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판결 과정을 서술하는 현재의 판결문의 질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활동을 통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느낀 점도 많았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활동인 만큼 남은 학기를 열심히 수료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이 ○ 주

매일 아침, 대다수의 좋지 않은 소식과 아주 조금의 선행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온다. 연일 경제 지표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허위광고와 사기에 속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그 이야기들을 듣는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만들 좋은 기회를 찾던 중 법률 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했다. 타 피상적인 활동과 달리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사람들의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 매우 큰 기대를 안고 활동에 신청했다.

이어진 활동은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내 일상 속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정책의 이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그를 조정할 대리인인 정치인을 선출하는 시민에게도 현 상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책은 이행을 향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직접 찾아보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평소 관심을 두고 살펴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판결을 찾아 즐겁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통계학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활동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활동을 수행하며, 세상 속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은 인간 다양성의 결과물이기에 이분법적이거나 단편

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의욕만 앞서 끝마치지 못한 활동들에 아쉬움이 남아 하계 봉사활동을 또 신청할 예정이다. 친절하게 활동 안내해 주신 담당분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저학년에 알았다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무척 아쉽다. 하계 봉사활동을 신청한다면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 ○ 연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쓰는 소감문이 내게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소감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로스쿨 진학을 갑자기 꿈꾼 것이 아니기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하는 청년사법참여단,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국민참여단, UN산하 청년 단체, DB에서 진행하는 경영스쿨, 외교부 지원 받아 미국으로 연구차 다녀오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학기에 만나게 된 것이다.

아쉬운 점은 더 빨리 이 활동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 너무 늦게 알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말고는 전혀 없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선배들 중에 이미 졸업하자마자 국회에서 일을 하거나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다수 있었고 그들과 이야기 할 기회도 충분했기에 의정모니터링을 하기 전 마음은 가벼웠다.

이미 내가 잘 아는 내용들의 공약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공약집도 매번 꼼꼼히 보기 때문에 예측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내가 처음 활동으로 받은 의원들의 공약수는 내가 감히 짐작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단 공약의 개수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의정모니터링을 더욱 진행하면서 안 사실이지만 공약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 놀랄 부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놀랐던 것은 의원들이 기본 30-40개부터 많게는 130개정도까지의 공약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다수 경험한 나에게도 이는 낯선 사실인데 일반 시민들은 더욱 의원들의 노고를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들이 아무리 자신의 공약을 널리 알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밀려 삭제되는 공약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찾아보면 왜 이런 공약들이 나오게 된 것인지, 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정치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리트와 각종 사정으로 인해 의정모니터링 밖에 신청하지 못했지만 가을학기에는 다양

한 활동들을 신청해 로스쿨 입학 전까지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 가톨릭대학교(성심) 법학과 문 ○ 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여러 법학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알아보던 중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니 수많은 활동과 해당 활동들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이나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또는 번역 봉사, 사법 감시배심원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사법 감시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다는 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참여하고 싶었지만, 올해 관공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하다 보니 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법 감시배심원단을 놓치게 되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빠짐없이 참석해서 방청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필수활동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많은 의원이 공약을 내세워서 공약하고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로서의 제 행동과 생각도 다시금 고쳐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당선 이후의 임기 중에는 처음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꾸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은 공약의 경우, 공약이행률이나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비교적 관심이 적은 공약들은 더딘 진행 속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뤄지는 공약들도 있어서 이해관계로 이뤄지는 공약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수 표적인 공약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공약 가능성이 없는 공약도 더러 있었고, 개수를 늘리기 위한 공약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약을 확인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하나하나 모든 공약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다 보니, 더욱더 해당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파악하기에 쉬웠습니다. 저에게 공약의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재택봉사가 가능하던 점과 판결문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풀어쓴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판결문 리서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를 처음 선정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쟁점이나 사안이 중요하다는 부분과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좋은 판례를 선정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판례들이 생각보다 법에 문외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결 요지나 판시사항이 없는 판례들도 있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판결 요지가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만 읽을 게 아니라, 해당 대법

원 판례의 원심들을 읽는 게 훨씬 판례를 이해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법원 판례들을 읽고 나서 모호했던 부분들이 1심과 2심 판례를 읽으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되고 서로 유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고 판단되는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은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법학적 사고력과 시선과 생각을 만들 계기를 만들어 주어 너무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강 ○ 지

저는 로스쿨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에 여러 사이트를 통해 로스쿨진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보던중,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소비자연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해당연맹에 대해 찾아보고 봉사활동의 종류와 역할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번역봉사,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실제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해당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입니다. 해당활동은 이번 여름학기 필수활동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21대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잘 이행했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2명의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공약이행률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도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국회의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진심으로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을 자세하게 알아 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를 진행한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번역봉사가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특히 미국의 여러 주의 헌법을 알아 보면서 해당 주의 법은 이렇구나!를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고 번역하는 것에 주의를 했었고, 이를 통해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해보고 싶었던활동은 <법원모니터링>입니다. 평소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직접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법률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전공인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봉사프로그램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철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최 ○ 음

2022년도 겨울학기부터 이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봉사활동이었다.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에 관한 시민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번학기에는 법률연맹 행사 도우미, 사법감시배심원단,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네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1. 법률연맹 행사 도우미

21대 국회의원 3개년 의정활동종합평가회(검 헌정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정기국회(9~10월) 국정감사모니터단 출범식(준비모임) 행사 안내 도우미 활동을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두 번째 참여였는데, 헌정대상은 입법활동,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현황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한다. 직접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만큼 공신력 있는 상이고,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시상이 끝나고 이어서 국정감사모니터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가을학기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기르고 싶다.

2. 사법감시배심원단

서울남부지법 2023고합25호 피고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에 관한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이어서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징역형이 내려진 건 외에 피해자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하다 발견한 추가 혐의에 대해 고발한 건이다.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확진과 개인 일정 등의 문제로 2번 불참하게 되어 아쉬웠다. 다음 기일 10월 10일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8월 11일 공판에서는 VIK의 회계 담당자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철 대표와는 인척 관계에 있었다. 질문의 요지는 왜 법인 명의를 아니라 개인 명의로 이체가 되었으며, 왜 처음에는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되었지만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냐는 것이었다. 증인의 답변은 대부분 자신은 투자심사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회계처리 했을 뿐이고 범법 행위를 의심하거나, 우려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전공에서 회계를 꾸준히 배웠기 때문에 공판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도 재판당사자들의 질문의 요지처럼 법인 명의를 아니라 개인 명의로 이체한 것에 의구심이 들었고, 증인이 자신의 행동에 당당하다면 검찰 압수수색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당황할 이유가 없어보였다. 같은 회계 부서 직원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조금은 어려

움이 있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법률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전공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주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판결문 리서치는 전공과 연계되는 분야들의 사건을 신청했다.

3. 판결문 리서치

이번 판결문 리서치는 총 2건을 수행하였다.

1) 위 2023고합25와 같은 죄명의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도6151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았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면서 같은 죄명의 재판을 수차례 보면서 다른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여 해당 사건을 리서치하게 되었다.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거래처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다루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와 같은 법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좋은 판례라고 생각된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도13864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았다. 한국경제TV의 출연자가 시청자들에게 주식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주식을 소개하여 차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기소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스캘핑(Scalping)이라고 한다. 1심은 이러한 ‘매수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2심은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매수 추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경제TV 방송의 파급력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생각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매수 추천’ 행위라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이 파기하는 모습을 보며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였다.

4. 의정모니터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과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두 명의 공약분석과 2차 공약 이행률조사를 수행하였다. 공약분석은 적절하게 잘 이루

어진 경우도 있었고,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수정하였다. 2차 이행률 조사인 만큼, 이전 조사 시기에는 지켜지지 않은 공약도 완료된 경우가 많아 1차 이행률 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두 의원 공통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의정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 정도와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이행률을 조사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의정보고모니터링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의원의 입법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과 제정 등의 상황을 찾아봄으로써 정책 시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당수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밀린 공약도 있을 것이고, 이른 바 자신의 지역만을 위한 선심성 법안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입법 생산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김 ○ 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시는 학과 선배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와 법률봉사라는 활동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활동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차나에, 내 흥미와 적성 분야인 법률 관련 봉사라는 소식에 반갑게 신청했다. 처음의 의지와 달리 여름방학 동안 본가에 계획보다 오래 머물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는 등 여러 변수가 생겨, 생각만큼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으나 이를 잘 간직하여 가을학기 법률봉사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소감문을 적는다. 내가 주로 참여했던 활동은 여름학기 법률봉사의 필수활동이었던 의정보고모니터링이었다. 현재 당선되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당선 후인 지금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앞선 봉사자 분들이 공약 분류를 이미 해놓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이었기에 이 부분까지는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번거로웠는데,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공식홈페이지나 해당 국회의원의 블로그, 여러 기사들을 서치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내가 맡은 국회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을 국회의원이고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국회의원이었다. 둘 다 내 연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 지역명부터 낯설고 생소해 힘들었다. 그러나 몇 시간을 해맨 뒤부터는 나름의 서치 노하우가 생겨 새로운 자료들을 잘 찾아낼 수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사소한 공약이 많아 신기하기도 했다. 당장 내가 매일같이 보는 횡단보도와 가로등, 보도블럭까지도 여러 절차를 거쳐 공약이 이행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업 중후반부터는 어떤 공약이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인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리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이익 다툼이나 환경 문제, 국가전체적 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꽤 있어 안타까웠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을 딱히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사실 태어나서부터 학창시절 내내를 보내온 본가가 부산 인지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정책에는 큰 애정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번 의정보고모니터링을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정책을 비판적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전부터 바라던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아직 대학생인 내가 직접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도를 채점하다 보니 서툰 부분이나 의도치 않은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서툰 모든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배움을 안겨주었다. 다른 다양한 법률봉사 종류들도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든다. 가을학기에는 여름 학기에 얻은 배움과 의지를 바탕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 ○ 경

올해 봄 학기에 이어 또 다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법률연맹 봉사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법체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국정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참가를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크게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과 실제 재판의 판결문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해 분석하는 것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내 소양을 기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학부에서 우연히 듣게 된 법학과목에 흥미를 느껴 열거에 법규범을 융합전공까지 하게 되었으나, 학부 강의에서 배우는 법학은 학설과 법률 개념을 배우는 데에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붓고 정작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리서치 활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소나마 보충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크다.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에서 배운 여러 법률개념이 실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확인한 판례였다. “공유”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만 법률용어로 쓰였을 때에는 그와 다른 특별한 힘을 지닌다. 한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공유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집합건물의 공유관계도 그대로 포섭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읽으며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논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원래

그런 것"이란 법학에서 거의 없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판결문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비문, 지나치게 긴 문장이 난무하는 글이라는 비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실제로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점도 물론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법률가들이 벌이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속에 얹혀있는 법적 쟁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학을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음 활동에서는 실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원을 방문하여 더 공부해 보고 싶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 ○ 혁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앞으로의 제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조인을 꿈꾸는 제 입장에서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는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분야였고 언론모니터링, 등 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긴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봉사활동에서 했던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재밌고 보람이 있어서 이번 여름학기에도 이전 학기들처럼 재밌고 보람찬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고 민사사건 4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상법과 회사법, 부당경쟁방지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번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들을 알 수 있었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있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법 조항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신기했고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민사사건의 당사자, 쟁점 등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전 학기에 분석했었던 형사사건, 행정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사건마다의 특징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각 쟁점을 어떠한 사실들을 가지고 해결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1심부터 3심까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재판관 분들의 의견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 설득력이 굉장히 높았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하

기도 쉬웠습니다. 또한 2심과 3심의 경우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앞선 재판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서 분석해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몇몇 판결문에서는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법조인이 법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판결문은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워서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에 관련 법조문이 무엇인지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참고할만한 다른 판례들도 명시되어 있어서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었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학기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필수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에 조웅천 경기도 남양주시갑, 이학영 경기도 군포시의 공약을 점검하고 제2차 공약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두 국회의원 모두 상당수의 공약들을 이행하였지만 몇몇 공약들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바뀐 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것들을 보면 몇몇은 겹치는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공약인데 명칭만 살짝 바뀌어서 다른 공약인 것처럼 한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약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약이 여러 번 수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약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적어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사법감시배심원단에 지원하여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법 2023고합2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가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례 분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재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법정의 분위기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정에 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법정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방청해보려고 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 ○ 경

2023년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법조인의 꿈을 가진 나에게, 이 봉사활동은 유의미하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의정모니

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 중 특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과 법정모니터링은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준 활동이자 법조인의 삶을 엿볼 기회를 준 활동이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은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것과 2차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으며, 나 또한 그동안 이에 관심이 없던 것에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였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문제가 있는 사건이나 재판을 집중하여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모니터링했던 사건은 "검찰이 이미 파악했던 내용을 수사 기록에서 찾아 고발했을 뿐, 검찰이 부실수사했던 것을 뒤늦게 기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며, 피의자에게는 이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변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법정모니터링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으로, 이 활동 덕분에 법원과 재판의 이미지가 바뀌었으며, 재판 과정과 판사, 검사, 변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원래 나에게 법원이나 재판은 엄숙하고 가까이하지 못 하는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졌었다. 물론 모든 시민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언가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만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모니터링을 여러 번 거듭하면 할 수록 법원과 재판은 나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가 되어갔다. 또, 법원 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의 태도를 체크하고 직접 재판 내용을 필기하며 방청을 하다 보니 그들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법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어 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일반 정 ○ 보

23년의 반이 흘렀습니다. 일적으로 문제가 많아 제대로 복학기를 끝내지 못한 까닭에 여름 학기는 좀 더 미리 활동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덕에 끝까지 완주했지만 여전히 막판에 제가 좋아하는 판결문 리서치

편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사 특성상 평일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활동들 많았고 그것들을 다 담당하시느라 연맹에서 활동하는 관리자 분들께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불씨가 점점 사그라 들고 더 나은 내일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의 발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과거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잇고 살았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며 사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시냇물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바다로 흘러가는 길에 합류하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제 서른을 앞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괴짜로 불리기도 하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낭만의 시대' 유물이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따져보고 좀 돌아가더라고 그것이 저 숲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보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고민하다 잠드는 삶을 아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오롯이 나 스스로를 생각해도 모자란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철없이 보물을 찾아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꿈을 꾸는 낭만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실현하는 길에 법률 봉사활동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도 신청 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가를 써서라도 현장 활동 많이 참여하려 합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